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발화하는 인간: 시편 19편 15절의 לִבִּי הִנֵּי (헤그온 립비/내 심장의 소리, 내적 발화)가 지니는 신학적-인간학적 함의에 대한 고찰*

임성권(장신대)

1. 들어가는 말: ‘말’이 지니는 전인적 차원에서의 함의와 내적 발화로서 ‘생각’

시편 19편의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운데 놓인 인간의 내면세계가 자세히 그려진다.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주님 앞에 “내 입의 말들과 내 심장의 소리”가 기뻐 받으시도록 드러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자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Coram Deo”,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근원적 위치를 확인시켜준다.¹

* 본 소고는 시편 19편에 대한 주석적 연구인 필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발전시킨 형태로서 마지막절의 לִבִּי הִנֵּי (헤그온 립비/내 심장의 소리, 내적 발화)에 대한 신학적-인간학적 숙고를 통하여 시편 19편에 나타나는 구약 성서의 인간 이해를 조망함을 목적으로 한다. MT 본문의 시편 19편 15절 부분은 한글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시편 19편 14절로 표기되는데, 여기서는 구약 히브리어 본문의 표기를 따라 15절로 표기하였다. 다음논문을 참조하라. 임성권, “시편 19편에 관한 주석적 연구: 시편 19편에 나타나는 〈토라〉 개념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미간행 석사 학위 논문, 2015), 1-83.

1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마땅한 근원적 위치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

“내 입의 말들” 곧 외적 발화와 “내 심장의 소리” 곧 내적 발화가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심직하기를 원한다는 19편 마지막 절 고백은 다중적 의미의 내적 평행법의 구조를 이룬다. 한편으로는 이 구조는 입과 심장(마음)의 상응관계에 대해 생각과 관련하여 가장 내밀한 신체기관인 심장(마음)과 말로써 생각을 가장 외부로 드러나는 신체기관인 입 사이의 대조적 평행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볼프(Hans Walter Wolff)의 총체적 인간론의 관점에서 입과 심장(마음)을 살펴볼 때, 일부 신체기관을 지칭하면서 전인적 인간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가능하다.² 입의 외적 발화와 심장(마음)의 내적 발화가 동적 평행법으로 상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9편 15절의 **לִפְנֵי** (르파네카/당신 앞에서)는 당신을 뜻하는 2인칭 남성 단수 대명 접미어가 히브리어의 전치사 “리프네”와 결합된 형태이다. 또한 “리프네”는 비분리전치사 “르”와 얼굴을 뜻하는 “파님”의 결합 형태의 전치사로서 히브리어의 독특한 관용적 표현이다. 볼프는 그의 「구약성서의 인간학」에서 이 “파님”에 주목한 바 있다.³ 그에 따르면 복수형태를 기본형으로 취하는 이 ‘얼굴’이라는 어휘는 인간론적으로 바라보는 두 ‘눈’, 듣는 두 ‘귀’, 말하는 ‘입’을 아우르며, “어느 방향으로 향하다”를 뜻하는 “파나” 동사와 어원적으로 동일하다. 즉, 얼굴이 향하는 방향이 그가 가는 방향이며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그가 향한 대상을 향

조하라. 김진명, 「구약을 그리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5), 1-470; 배정훈, 「거룩의 여정: 거룩에 관한 성서적 탐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22), 1-244; 하경택, “하나님 닮아가기”(Imitatio Dei)로서의 정의: 시편을 통해서 본 구약성서의 ‘정의’ 신학,” 「장신논단」 48/2 (2016. 6), 37-66.

2 볼프,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화석 옮김), (웨판: 분도출판사, 1976), 24-149, 원제는 Hans Walter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Chr. Kaiser, 1973).

3 볼프, 윗글, 141-149.

하여 듣고, 말하고, 주목하여 바라봄을 내포한다.⁴ 따라서 시편 19편 마지막절의 “주님, 당신 앞에…나의 입의 말들과 내 심장의 소리, 곧 마음의 내적 발화가…”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을 향하여 마음으로 바라보고 말하며 경청하여 듣고, 그분을 향하여 삶의 걸음의 방향성을 정위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깊은 관계성은 “얼굴과 얼굴로 알고 있으며”(신 34:10) “입과 입을 마주하고 대면하여 말하는 사이로”(민 12:8) 표현되어 있다.⁵ 신명기 34장 10절 하반절의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는 표현은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주님께서 그를 아셨다(יְהוָה פָּנִים אֶל-פָּנִים)/예드오 아도나이 파님 엘 파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민수기 12장 8절 상반절의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라는 표현은 “입과 입으로 마주하여 또한 명백함으로 내가 그와 말한다(וַיִּמְרָאָה אֶל-פִּהּ אֶל-פִּהּ אֶדְבָּרָבוּ וַיִּמְרָאָה)/페 엘 페 아다 베르 보 우마르에)”고 직역할 수 있다. 시편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에게는 토라를 수여받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기대되며 열려있다.⁶

4 야노브스키(Bernd Janowski)는 구약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귀, 코, 눈, 입, 얼굴의 신체 기관이 관계성을 맺는 능력 혹은 의사소통 능력(Kommunikationsvermögen)을 담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Bernd Janowski,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Grundfragen-Kontexte- Themenfelder Mit einem Quellenanhang und zahlreichen Abbildungen* (Tübingen: Mohr Siebeck, 2019), 142-144.

5 박종수는 그의 연구에서 인간과 불가시성의 하나님 사이의 성육신적 직접적 의사소통이라는 관계적 친밀감에 주목하면서, 얼굴 대 얼굴이라는 표현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박종수, “구약성서의 인간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집 (2011년), 5-28.

6 1편과 2편, 19편과 18,20-21편, 118편과 119편의 토라 시편과 제왕시의 결합된 구조 가운데 나타나는 토라 준수를 통한 왕권의 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와 맞물려서 19편은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따라 전인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준수함으로 보호받고 인정받는 왕적인 권위가 영적으로 확대됨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토라 시편과 제왕시의 결합된 배열의 신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J. A. Grant, “The Psalms and the King”, David G. Firth and Philip S. Johnston (ed.)

시편 19편의 구조적 흐름으로부터 이 시편의 신학적 인간학을 이야기해볼 수 있다. 19편에는 하나님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근원적 관계성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에 대한 숙고가 나타난다. 본 소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근원적 관계성은 태양과 피조세계의 관계의 유비에서처럼 말씀으로 드러나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존재감과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 인간의 깊은 관계로 표현된다. 크라우스(H.-J. Kraus)가 그의 「시편의 신학」에서 논한 바, 하나님 없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서는 온전한 인간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따라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다.⁷ 시편 19편에서 시인의 내적 외적 발화는 하나님의 발화행동과 맞닿아 이루어진다. 이는 마치 온 피조세계의 소리없는 발화가 태양의 뜨고 지는 존재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의 관계적 유비와 연결된다. 말씀의 존재감으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근원적 관계 가운데 놓인 인간은 다른 한편으로는 피조세계 가운데 살아간다. 그 모든 피조세계는 태양과의 관계 가운데 온땅 가득하게 발화하고 있다. 시인 또한 모든 피조세계의 발화에 합당하게 합류하기를 간구하고 있다.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5), 101-118.

- 7 H.-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신윤수 옮김),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4), 330-428. 원제는 H.-J. Kraus, *Theologie der Psalmen*. 2. Aufl. (Biblicher Kommentar, Bd 15;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s, Neukirchen-Vluyn, 1978-1979).

www.kci.go.kr

2. 전체로서의 시편집: 1-2편의 “하가” 동사와 시편 19편의 “헤그온 립비”

내적발화로서 “생각” 혹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הָגָה**(하가/내적으로 발화하다) 동사와 시편 19편 마지막절에 나타나는 **לִבִּי הִגִּיין**(헤그온 립비/내 마음의 발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 “헤그온”은 “하가” 동사로부터 파생된 명사 “히가온”의 연계 형태이다.⁹ **לִבִּי הִגִּיין**(헤그온 립비/내 마음의 발화)는 일차적으로 직역하면 ‘내 심장의 소리’를 뜻할 수 있다. 그리고 **לֵב**(레브/마음, 심장)와 연결되어 쓰이는 용례들에서 “하가” 동사는 존재의 근원으로서 **לֵב**에서 나는 소리, 혹은 발화를 가리킨다.¹⁰ 존재의 깊이는 내부로부터의 발화와 관련된 “하가” 동사의 용례는 전체로서의 시편집의 서문격인 1-2편 가운데 각각 나타나면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전체 시편집에서 **הִגִּיין**에 대한 같은 어원인 **הָגָה** 동사는 용례의 범주 폭이 상당히 큰 어휘로서 한글로 번역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어휘이다. 시편 1편 2절과 2편 1절은 이 어휘가 갖는 인간학적 복잡성을 잘 드러내어 준다. 시편집을 도입하는 서문격인 1-2편에 두 차례 등장하는

8 **הָגָה**(하가/내적으로 발화하다) 동사와 이로부터 파생된 명사들은 일차적으로 동물의 울음 소리, 악기의 음악소리, 천둥과 같은 자연 현상의 소리를 아우르는 존재 근원으로부터 발화되는 어떤 소리를 지칭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A. Negoita and H. Ringgren, “הָגָה”,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eds.), *TDOT* vol. III (Grand Rapids: Eerdmans, 1997), 321-325.

9 리조브스키(G. Lisowsky)는 그의 용례 분석 사전에서 히가온의 연계형 **הִגִּיין**을 **הָגָה** 동사의 같은 어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어휘의 용례 범주는 연계형 내에서 공유된다. G. Lisowsky, *Konkordanz zum hebraischen Alten Testament* (Stuttgart: Privileg. Wurttemberg, 1993), 379.

10 “레브”와 “하가” 동사가 연결된 다음 각 구약본문에서의 해석은 각각의 용례를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사 33:18; 59:13; 잠 15:28; 24:2). 추후 연구해볼 만한 후속 주제로 보인다.

이 동사는 한글 개역개정성경 시편 1편 2절과 2편 1절에서 각각 “묵상하다”와 “일을 꾸미다”로 번역되고 있다. 여기서 **הנה**는 의인과 악인의 중심으로부터 표출되는 내적 발화로서 생각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지향성에 있어서 전적으로 대조됨을 나타낸다.¹¹ 이러한 대조 속에서 시편집 전체를 관통하는 의인과 악인의 주제, 그리고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의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신학적-인간학적 담론 가운데 서로 연결된다.¹² 시편 1편은 더욱이 19편, 119편과 더불어 토라 시편으로 분류된다.¹³ 이러한 관련성 가운데 시편 19편의 **הַיְינוּן לְבִי**는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적 흐름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간학적 함의를 지닌다.

“하가” 동사는 구약성경 내의 다양한 용례를 종합하여 보면 일을 꾸미는 생각의 차원, 불명확한 소리를 내거나 떠들어 대는 발화의 차원, 또는 실행을 향한 생각에서의 내적 지향의 차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폭 넓은 의미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그 의미의 스펙트럼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해볼 수 있다.

-
- 11 **אָשְׁרֵי**(아쉬레/복됨), **יָרַךְ**(데레크/길), **הנה**(하가/발화하다), **אבד**(아바드/망하다) 등의 어휘들의 사용이 1-2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처음 두 시편은 전체 시편집의 서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맡아준다. 이와 관련하여서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하라. J. F. D. Creach,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William P. Brown (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Psalms* (New York, NY :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29-541; Susan Gillingham, *A Journey of Two Psalms: The Reception of Psalms 1 and 2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368.
- 12 전체로서의 시편집을 관통하는 이러한 1-2편의 주제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Jamie A. Grant, *The King as Exemplar: The Function of Deuteronomy's Kingship Law in the Shaping of the Book of Psalm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1-356.
- 13 시편집 내에서의 토라 시편이 갖는 함의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베스터만, 「시편해설: 시편의 구조, 주제, 해설, 메시지」 (노회원 옮김), (서울: 은성, 1996), 18-21. 원제는 C. Westermann, *Der Psalter* (Stuttgart: Calwer, 1967).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로서 외적으로 분명히 발화되지 않을 수 있으나 때로는 외적 발화 형태로 드러남	
생각의 차원	←————→ 발화의 차원

이처럼 한글로 특정하여 번역하기 쉽지 않은 어휘인 “하가” 동사와 관련하여 최초의 구약 성경인 「시편촬요」에서 피터스(Alexander Albert Pieters, 1871~1958)는 시편 19편 15절의 “헤그욘”에 대해 “내 입의 말씀과 내 마음의 ‘생각’”으로 번역함으로써, “하가”와 “헤그욘”에 대해 「시편촬요」에서 일관되게 “생각하다”와 “생각”으로 옮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시편 19편은 생각, 곧 내적 발화를 일컫는 “헤그욘”을 이 시 전체의 구조적 흐름 속에서 시인의 중요한 핵심어로서 위치를 갖는다. 시편집의 서론적인 1편과 2편의 이와 같은 “하가” 동사의 공통된 사용을 고려하는 가운데 시편 19편 마지막 절의 “헤그욘”으로 귀결되는 19편 전체의 구조적 흐름을 조망하면서 내적 발화로서 “마음의 생각”이 갖는 신학적-인간학적 함의를 살펴보는 순으로 본 소고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4 오늘날 쓰이지 않는 고어체 발음표기된 부분은 현대 한글 표기법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하였다. 고어체로 쓰인 원문에 대한 상세한 확인은 다음을 참고하라.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시편촬요: 최초의 한글 구약성경: 찬성시 수록」 (박준서 엮음/김중은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195.

3. 시편 19편 구조적 흐름과 “헤그온”

1) 시편 19편의 구조에 대한 논의

이 19편 마지막 절의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내적 발화가 당신 앞에 기뻐 받으심직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지닌 19편의 신학적 인간학의 함의를 논하기 위해 우선 시편 19편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편 19편의 구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다. 이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시편 19편을 구조적으로 크게 2-7절 부분과 8절 이후 부분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 이 구분을 복수의 저자로 설명하려는 등 다양한 견해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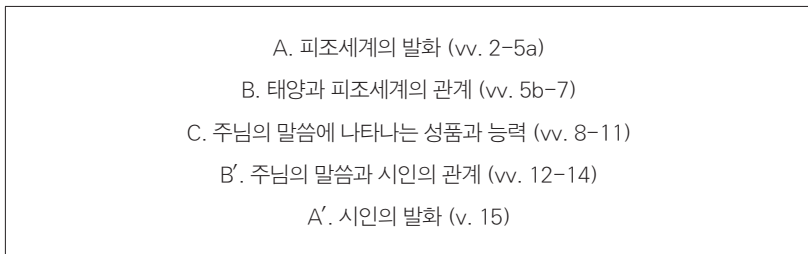
그 가운데 브릭스(C. A. Briggs)는 시편 19편을 시대가 다른 별개의 두 시, 곧 왕정시대의 것인 앞부분의 아침 찬양시(2-7절)와 헬라 시대 후기의 것인 뒷부분의 교훈시(8-15절)가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하나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이었다.¹⁵ 다후드(M. Dahood)는 이에 대해 아마도 태양을 찬양하는 고대 가나안 시를 차용한 앞부분(2-7절)과 교훈시로서의 뒷부분(8-15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서로 관련되는 두 부분이라고 보았다.¹⁶ 크레이기(P. C. Craigie)는 이에 대해 19편은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특징 가운데 단일한 작품이거나 옛 찬양시의 단편을 수용하여 자연을 통한 하나님 찬양의 앞부분(2-7절)과 토라를 통한 하나님 찬양의 뒷부분(8-15절)의 구성으로 확대시킨 단일체로 분석하

15 같은 집안의 두 학자에 의해 이 연구서 초판은 1906년도에 출판되었다. C. A. Briggs and E. G. Briggs, *The Book of Psalm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56), 89.

16 그러면서도 다후드는 문체의 특징을 근거로 이 시편 전체를 동일 저자의 작품으로 파악하였다. Mitchel Dahood, *Psalms I, 1-50* (The Anchor Bible 16; New York: Doubleday, 1965), 121.

였다.¹⁷ 테리엔(S. L. Terrien)의 경우 연의 구조로 시편을 이해하였던 학자로서 그는 8-15절 부분을 좀더 세분화하여 2-7절(1연), 8-10절(2연), 11-14절(3연), 그리고 15절(결어), 이렇게 3개의 연과 결어의 구성으로 이해하였다.¹⁸ 김진명 역시 시편 19편에 대하여 단순히 두 부분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서두(1-7)와 말미(13-15)의 찬양시 부분이 중심부(8-11+12)의 율법시를 사이에 두고 교차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보아야 것을 제안한 바 있다.¹⁹

이처럼 학자들에 따라 여러 견해가 나타나지만 필자는 시편 19편을 단일 저자에 의한 8-11절을 중심축으로 하는 교차 대칭 구조(Chiasm)의 형태로 이해하였다. 2-7절과 8-15절 사이의 휴지 형태를 고려하면 서도 시의 큰 흐름에있어서 태양과 피조세계의 긴밀한 관계성의 유비가 주님의 말씀과 시인의 관계를 훌륭하게 드러내어주고 있는 시의 전체 구조를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17 크레이기, 「WBC 성경주석: 시편 1-50」 (손석태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241-246. 원제는 Peter, C. Craigie, *Psalms 1-50* (Word Biblical Commentary 19; Waco: Word Books, 1983).

18 S. L. Terrien,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 2003), 209.

19 김진명, “시편 19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율법’: 편집비평과 수사비평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8집 (2018년), 5-24.

앞부분의 2-7절 부분은 2-5절상반절과 5절하반절-7절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8-11절, 12-14절, 15절 사이에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각 단락마다 평행법적 진행이 나타나며 특별히 B 부분과 B' 부분이 교차 대칭 구조 속에서 의미적으로 상응하면서 비유적 평행법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고려한 분류이다.

19편 마지막절인 15절은 이 시편의 흐름상 2-5절 상반절 부분과 상응하면서 “말씀”을 찬양하는 8-11절을 중심으로 교차대칭구조(Chiasm)를 이룬다. A-B-C-B'-A'의 꺾쇠구조 가운데 도입부인 A(2-5절상반절) 부분은 하늘로 대표되는 피조세계의 발화행동을 표현하고 중심부인 C(8-11절) 부분은 주 하나님의 발화행동을 드러낸다. 걸어서 A'(15절) 부분은 화자의 발화행동을 중심으로 표현된다. 이들 사이의 B(5절 하반절-7절) 부분과 B'(12-14절) 부분은 서로 의미 맥락으로 긴밀하게 연결점을 맺는 방식으로써 비유적 평행법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B 부분에서는 태양과 피조세계의 관계성이 의인화되어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세계의 창조 질서를 찬양하고자 함이 아니다. 명확한 목적 가운데 B' 부분에서의 말씀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유비로서 시 전체의 교차 대칭 구조 속에서 각각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피조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조망으로부터 화자의 내면으로 집중 조명되는 시적 구조의 흐름에 대해서는 와그너(Wagner)가 이미 논한 바가 있다.²⁰

20 J. Ross Wagner, “From the Heavens to the Heart: The Dynamics of Psalm 19 as Prayer”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Vol. 61, No. 2 (April 1999), 245-261.

2) A(1연: 2-5절(上)). 피조세계의 발화

15절에서 다중적으로 평행법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 입의 말들과 마음의 내적발화”에 대해 하늘과 궁창의 발화행동, 날과 밤의 발화행동이 상응하는 가운데 시는 시작된다. 1연에서는 하늘과 궁창으로 대표되는 피조세계가 발화 주체들로서 표현된다. 하늘, 궁창은 태양이 떠 있는 공간이다. 또한 “날이 날에게…밤이 밤에게” 태양의 뜨고 짐에 따라 발화를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하늘과 궁창, 날과 밤은 모두 태양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공간적 차원으로나 시간적 차원으로 태양은 그 거처를 저들 사이에 두면서, 저들의 발화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1절	לְמַנְצַח מְזִמּוֹר לְדָוִד:
2절	הַשָּׁמַיִם מְסַפְּרִים כְּבוֹד־אֱלֹהִים וּמַעֲשֵׂה יְדֵיו מִגִּיד הָרָקִיעַ:
3절	יּוֹם לַיּוֹם יְבִיעַ אִמָּר וְלַיְלָה לַלַּיְלָה יִתְחַהֲדַעַת:
4절	אֵין־אִמָּר וְאֵין דְּבָרִים בְּלִי נִשְׁמָע קוֹלָם:
5절 상반절	בְּכָל־הָאָרֶץ יֵצֵא קוֹם וּבְכָפָה תִּבֵּל מְלִיהֶם
1절(표제어)	찬양 지휘자를 위한. 다윗의(에게 바쳐진) 노래
2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히 말하며 창공이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설명해 주고 있다
3절	날은 날에게 담화를 쏟아놓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선포한다

4절

담화도 없고 말들도 없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리지는 않지만

5절 상반절

온 땅 위에 그들의 줄이 나아가고
세계의 끝까지 그들의 말들이 뻗어나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히 말하며(מִיְיָ) 궁창이 그의 손으로 행하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מְנִיִּי)”는 2절의 발화행동은 태양과 관련되고 있음이 5절 상반절의 “그들의 줄이 온 땅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에서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난다. 3절의 “날이 날에게 담화를 쏟아놓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선포한다”는 표현 역시 4절을 거쳐 5절 상반절로 귀결된다. 이들의 발화 행동은 온 땅 위에 나아가고 세계의 끝까지 뻗어나가지만 청각을 울리지 않는다.

난해 구절인 5절의 “그들의 줄” 혹은 “그들의 선”(כֶּבֶד/카밤)이라는 표현은 청각의 시각화 이루어지는 부분이다,²¹ 피조세계의 발화 행동이 태양의 광선을 받아 비추이는 이미지를 줄로서 표현하면서 앞선 4절의 “말하는 것도 없고, 말들도 없으며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도 없다”는 진술이 갖는 청각적 차원이 시각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지점으로서 시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다. 태양과의 관계 속에서 태양의 비추임을 받는 온 피조세계가 들리지 않으나 온 땅으로 나아가는 발화 행동을 시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이는 매우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다. 이러한 피조세계의 발화 행동은 태양의 존재감으로 인해 가능한 수동적인 것으로서 능동적으로 표현되나 근본적으로 수용

21 쿠체(Johan H. Coetzee)는 כֶּבֶד에 대해 청각과 시각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어휘로 분석한다. 시편 19편에 대해 청각, 시각, 미각 등 신체 감각에 기반한 언어 표현 현상에 주목한 연구로 다음을 참고하라. Johan H. Coetzee, “Listen to the silent voice of the heavens and taste the sweetness of torah: Reading Psalm 19 from a “body phenomenological” and an “embodied understanding” perspective”, *OTE* 22/2 (2009), 281-301.

적 행동임이 드러나고 있다.²²

난해 구절인 이 **מִן** 부분에 대해 칠십인경은 “그들의 발화 소리”(ὁ φθόγγος αὐτῶν/호 프통고스 아우톤)로 옮기고 있다.²³ 측량하는 줄이나 현악기의 줄을 뜻하는 “카브”에 대하여 태양의 광선에 대해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절들의 청각적 이미지들의 흐름, 곧 온 땅에 가득한 계시적 소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였음이 드러난다.²⁴

3) B(2연: 5절(下)-7절). 태양과 피조세계의 관계

5절 하반절에 비로소 언급되는 태양은 사실상 2-5절 상반절의 하늘로 대표되는 피조세계의 발화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배후의 근원적 대상이었다. B연에 해당되는 5절 하반절부터 7절에서 태양은 더이상 숨어있지 않고 배후로부터 전면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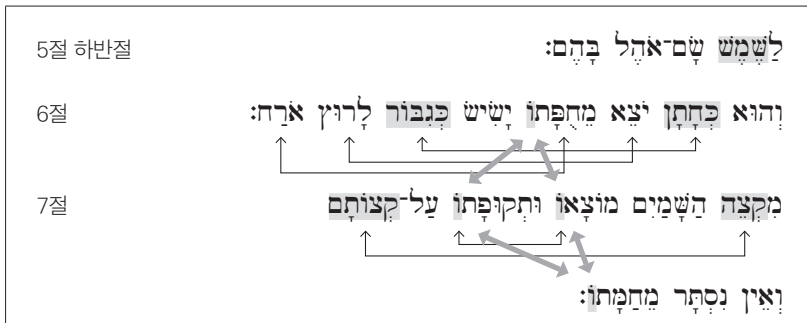
5절 하반절의 “그들”은 A단락에서의 하늘과 궁창, 날과 밤을 지칭한다. 태양이 뜨고 지는 시공간적 차원의 범주들인 이것들은 발화행동

22 크라우스(H.-J. Kraus)는 피조세계의 수동적 발화 행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신학자 바르트의 시편 19편 언급을 의미있게 다룬다. “말도 없고, ‘언어도 없다’-이 말은 곧 하늘이나 궁창 스스로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능력을 획득한다. 그들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자신의 존재나 기원과 관련한 궁극적이고도 신뢰할 만한 일을 이제 그들이 말한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빛에 비추이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리고 그분의 진리에 부합할 때...” K. Barth, KD IV/3, 187,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신윤수 옮김),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4), 84. 원제는 H.-J. Kraus, *Theologie der Psalmen*, 2. Aufl. (Biblicher Kommentar, Bd 15;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s, Neukirchen-Vluyn, 1978-1979)에서 재인용.

23 φθόγγος(프통고스/발화)의 동사형태인 φθέγγεσθαι(프테게스타이/발화하다)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절, 14절 등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을 뜻하는 ἀποφθέγγεσθαι(아포프테게스타이/예언적으로 발화하다)와 어원적으로 동일하다.

24 측량줄을 뜻할 수 있는 5절 상반절의 “카브”에 대해 발화 소리로 번역하는 칠십인경의 이해는 이후 절들에서 표현되고 있는 태양의 왕적인 융맹한 전사 이미지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가운데 쿠테가 주목하였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 시각의 청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백하게 반영한다. Coetzee, 윌글, 288.

을 하는 주체들로서 능동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의 발화행동의 근원은 5절 하반절에서 비로소 표현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두셨다”는 것이다. 시편 119편에는 이스라엘, 성전, 모세와 같은 공동체적 범주를 지칭하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²⁵ 다만 태양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장막을 두셨다는 표현이 유비적으로 갖는 의미 맥락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5절 하반절-7절의 B 부분은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루는 시 전체의 흐름상 12-14절과 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B-B'의 두 단락 사이에 비유적 평행법의 관계가 형성된다.²⁶ B 단락에서 나타나는 태양과 피조세계와의 관계성의 유비가 B' 단락에서의 말씀과 인간의 관계성 가운데 유효하게 연결된다.



- 25 이러한 현상은 119편 또한 마찬가지이며 신학적으로 의도된 본문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K. A. Reynolds, *Torah as Teacher: The Exemplary Torah Student in Psalm 119* (Supplements Vetus Testamentum vol. 137; Boston: Brill, 2010), 1-265.
- 26 비유적 평행법에 관하여서는 험펠(J. Hempel)이 그의 저서, *Die althebräische Literatur und ihr hellenistisch-jüdisches Nachleben* 에서 언급한바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소고를 참조하라. 임성권, “시편 119편과 145편에서 나타나는 절 단위 평행법에 관한 비교 연구”, 『구약논단』 Vol.30 No.4 (2024월 12월), 333-363.

5절 하반절	그가 태양을 위해서 장막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
6절	그는 마치 그의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용사와 같다
7절	하늘 끝에 그의 시작하는 곳이 있으며 그의 노선은 그것들의 끝까지 이른다 그리고 그의 열기로부터 아무 것도 숨지 못한다

B 단락에서 태양은 6절에서 내적 평행법을 이루는 가운데 신랑과 용사로 의인화된다. 6절 상반절의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표현은 기쁨과 활기찬 정서적 상태를 드러낸다. 하반절의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용사와 같다”는 표현에서 거침없이 용맹한 전사의 이미지가 부각된다. 이는 단순히 태양을 의인화하여 칭송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 B 단락(5절(下)-7절)의 진술들은 이 시편의 구조적 흐름 속에서 B' 단락(12-14절)과의 상응 관계를 염두하면서 해석할 때 보다 더 명확해진다. 2연(B 단락, 5절(下)-7절)에서 언급되는 신랑과 용사라는 어휘는 암시적으로 신랑에 상응하는 신부는 누구인가의 물음을, 그리고 용사는 무엇을 위하여 그의 길을 기쁘게 달려나가는가의 질문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설이 4연(B' 단락, 12-14절)에서 자연스럽게 제시되는 상관성을 갖는다.

B 단락은 피조세계와의 관계성에 있어 태양의 주도적 능동성을 드러내어주는 반면, B' 단락에서는 말씀 앞에 선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화자의 말씀에 대한 수용적 갈망이 간절하게 고백되고 있다. B 단락과 B' 단락은 태양과 말씀, 하늘로 대표되는 피조세계와 시인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내면세계가 관계의 유비 가운데 서로를 더 잘 해석하도록 안내해주고 있다.

4) C(3연: 8-11절). 주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성품과 능력

뒤이어 나오는 C 단락은 시의 구조상 교차대칭구조의 중심부를 형성하는데, 명백하고도 수려하게 내적, 외적으로 평행법적 상응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평행법적 구조 속에서 תּוֹרַת יְהוָה(주님의 가르침/토라트 아도나이) 이하 여섯 개의 상응어들로 표현되는 ‘말씀’은 주님의 발화이자 그분의 존재감으로서 한 차례 그 성품이 표현되고, 그 다음 그 능력이 송영적으로 고백된다.

8절	תּוֹרַת יְהוָה תְּמִימָה מְשִׁיבַת נֶפֶשׁ עֲדוּת יְהוָה נֶאֱמָנָה מִחֻכִּימֹת פִּתִּי:
9절	פְּקוּדֵי יְהוָה יִשְׁרִים מִשְׁמַח־לֵב מִצּוֹת יְהוָה בְּרָה מְאִירַת עֵינַיִם:
10절	רְאֵת יְהוָה טְהוֹרָה עוֹמֶדֶת לְעַד מִשְׁפָּטֵי־יְהוָה אֱמֶת צִדְקוֹ יִחַדּוּ:
11절	הִנֵּחֲמָדִים מְזֻהָב וּמְפֹזָר רַב וּמְתוּקִים מְדֻבָּשׁ וְנֹפֶת צוֹפִים:
8절	주님의 가르침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며 주님의 증거는 진실로 믿을 만하여 단순한 자로 지혜롭게 하신다
9절	주님의 생각들은 옳으시기에 마음을 즐겁게 하시며 주님의 명령은 순결하시기에 두 눈을 밝히신다
10절	주님 경외함은 정결하여 끝까지 설 것이며 주님의 규례들은 진실하여 전보다 의로우시다
11절	금과 많은 정금보다 더 흠모할 만하고 꿀과 흘려넘치는 송이꿀보다 더욱 달다

온전하시고, 진실로 믿을만하며, 옳으시고, 순결하시며, 정결하고, 진실하시다는 하나님 성품에 합당한 송영적 고백이 주의 말씀에 대한 여섯 상응어들을 수식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²⁷ 이전 B 부분(2연, 5(下)-7절)에서 태양이 신랑과 용사로서 의인화 되어 표현되었듯, C 부분(3연, 12-14절)에서 주의 말씀이 인격화 되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으로서 역할한다.²⁸

시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존재감은 시의 표현기법 속에서 “말씀”으로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주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난다. 곧,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며,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즐겁게 하시며, 두 눈을 밝히신다. 마지막까지 서시며 전부의로우신 주의 말씀에 대한 송영은 평행법적 진행 속에서 누적되고 강화된다.

이러한 말씀에 담긴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관련하여, 핀스터부쉬(Karin Finsterbusch)는 시편 19편과 더불어 긴밀하게 연결된 토라 시편인 119편의 중심부 12연(89-96절)에서 ‘토라의 우주적 차원의 관점’(kosmische Perspektive der Tora)을 중심주제로서 주목하는데, 이는 시편

27 시편 19편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온전하시며(תְּמִימָה, 8절, 형용사 타뎀) 시인 또한 말씀의 주도적 다스림에 의하여 온전함에 이를 것임(אֵתֶם 14절, 동사 타뎀)이 표현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온전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되며, 또한 이르러야 함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라. 김진명, “레위기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 학위 논문, 2007), 1-250.

28 시편 19편은 15-24편이 소집록으로 묶이는 가운데 전사-하나님의 이미지를 공유한다. 시편 15편과 24편은 이 소집록내에서 양끝 시편으로서 입장에식시이며 교차 대칭 구조의 중심부인 토라 시편 19편을 제왕시인 18편, 20-21편이 감싸고 있는 구조를 이룬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라. W. P. Brown, “Here Comes the Sun: The Metaphorical Theology of Psalms 15-24”, E. Zenger(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238; Leuven: Peeters, 2010), 259-278; 브라운, 「시편」(하경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69-170. 원제는 W. P. Brown, *Psalms* (Interpreting Biblical Texts 3; Nashville: Abingdon, 2010).

19편에서 명백하게 부각되는 하늘과 궁창, 태양,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온 땅으로 뻗어나가는 계시적 차원의 소리와 직접적으로 상응한다.²⁹

5) B'(4연: 12-14절). 말씀과 시인의 관계
(태양에 은유되는 말씀을 흠모하는 시인)

12-13절

גַּם-עֲבָדֶיךָ נִזְהָר בָּהֶם בְּשִׁמְרָם עֲקֹב רָב: שְׂנֵאוֹת מִיַּיבִין מְנַסְתָּרוֹת נִקְנִי:

14절

גַּם מִזְדִּים חֹשֶׁךְ עֲבָדֶיךָ אֶל-יִמְשְׁלוּ-בִי אִזְ אֵיהֶם וְנִקִּיתִי מִפֶּשַׁע רָב:

12-13절

더욱이 당신의 종이 그것들로서 책망 받으며
그것들을 지키는 가운데 큰 보상이 있습니다
잘못된 점들을 누가 분별해내겠습니까?
숨겨진 잘못들로부터 나를 깨끗케 하소서

14절

또한 교만한 세력들로부터 당신의 종을 숨겨주소서
그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때에 저는 온전하여 큰 범죄로부터 깨끗할 것입니다

B'(4연) 부분에 해당하는 12-14절은 교차 대칭 구조 속에서 B(2연) 부분인 5절 하반절-7절과 상응한다. B 부분은 태양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되어 표현되고 있고 하늘로 대표되는 피조세계는 태양의 거처로서

29 핀스터부쉬는 알파벳 순의 이합체시로서 스물 두 개의 각 알파벳이 여덟 절씩의 연들을 이루고 있는 시편 119편의 중심부를 12연으로 이해한다. 이는 12연의 토라 이해가 119편 전체의 주제적 흐름에 직결되고 있음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Karin Finsterbusch, "Mutiperspektivität als Programm. Das betende Ich und die Tora in Psalm 119", M. Gilbert (ed.) *Wisdom and Torah: The Reception of 'Torah' in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Second Temple Period* (Leiden: Brill, 2013), 119-135.

신랑이자 용사로서 표현되는 태양을 품고 있음이 암시된다. 반면 B' 부분(4연, 12-14절)은 시인으로 대표되는 곧 연약한 한 인간의 주의 말씀 앞에서 수용적 역할이 부각되어 표현되면서 “주의 말씀”의 주도적 역할이 암시된다. 이는 험펠에 의해 표현되었던 비유적 평행법의 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³⁰ 비유적 평행법에서 B 부분(5(下)-7절)은 B' 부분(12-14절)의 중심내용을 유비적으로 잘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데 B 부분 자체로 일종의 관계의 유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태양과 피조세계의 깊은 관계성이 그들의 발화 행동과 맞물려서 B 부분에 해당되는 2연(5절 하반절-7절)에서 표현되고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 피조세계의 신비가 하나님의 영광을 송영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이 매우 아름답게 기술되지만 이 부분을 비유적 평행법으로 보게 되면 B 부분에서 진정 표현하고자 하는 무게 중심은 B' 부분으로 옮겨진다.

그렇다면 시인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함은 단순히 태양과 피조세계의 긴밀한 관계성 가운데 담겨있는 신비와 아름다움이라기보다 12-1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토라, 곧 주의 ‘말씀’과 화자로 대표되는 연약한 ‘인간’의 긴밀한 관계성에 있는 것이다. **וְהָאֱלֹהִים**(자하르/깨우치다) 동사의 니팔 분사 형태로 “경고를 받는다”는 지속과 반복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는 **וְהָאֱלֹהִים**는 어원적으로 빛과 관련하여 ‘번쩍이게 하다, 밝게 하다’로부터 유래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³¹ 앞선 B 부분(5(下)-7절)은 태양을 주어로 하는 능동태 문장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B' 부분(12-14절)은 화자를 중심으로 단순수동 혹은 재귀를 나타내는 니팔 형태, 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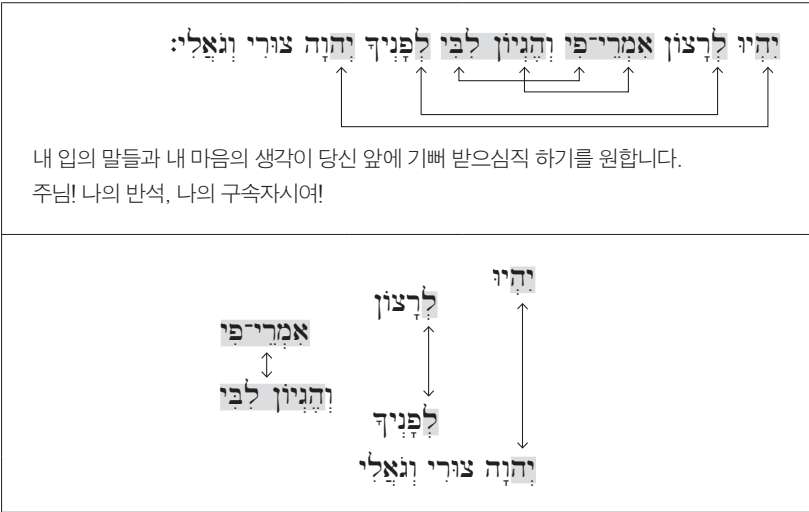
30 Hempel, 윗글, 65.

31 이와 관련하여 두 부류의 학자들의 견해가 존재한다. 곧, 빛의 이미지와 깨우침의 어의와 서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조하라. M. Görg, “וְהָאֱלֹהִים”,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eds.), TDOT vol.IV (Grand Rapids: Eerdmans, 1997), 41-45.

은 타동사의 목적어로서 화자가 지칭되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태양과 피조세계의 관계적 유비로부터 주의 말씀과 화자의 관계성이 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의 문법적 현상은 이러한 관계의 유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6) A'(결어: 15절). 시인의 발화와 “헤그운”

19편 마지막 절인 15절은 내적 평행법의 구조를 이룬다. 단순히 보이는 한 절이지만 이 구절은 평행법상 다중적으로 열려있는 의미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내 입의 말들”(אִמְרֵי-פִי/이므레-피)과 “내 마음의 생각”(הַגִּידוֹת לִבִּי/헤그운 립비)은 15절 내에서 다중적으로 평행법을 구성하고 있다. 문법적으로는 명사 연계형과 절대형의 결합된 형태로서 상응하면서 복수와 단수의 호응을 이룬다. 또한 둘 다 1인칭 공성 단수 대명접미어의 결합

형태로 끝나면서 문법적으로, 음성학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상응을 이룬다.

이 두 명사구의 바깥쪽에서도 **לְרִצּוֹן יְהוָה**과 **לְפָנֶיךָ יְהוָה**는 비분리전치사 **לְ**의 반복과 **יְהוָה**철자의 반복 가운데 일종의 꺾쇠구조를 형성하면서 **אֲמַרְיִפִּי וְהִנֵּין לִבִּי**(이므레-피 베헤그온 립비/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생각)를 감싸주고 있다. 이로써 가운데 부분의 두 명사구는 평행법적 진행의 동적 구조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한다.

이 부분에 대해 최초의 한글 성경인 시편촬요는 “나의 반석과 나를 구속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씀과 내 마음의 ‘생각’을 깃브게 드리소서”로 기록하고 있다.³² 또한 가장 최근의 새한글성경은 이 부분을 “주님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말들을.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 여호와님, 나의 바위벽, 나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옮기고 있다. 개역개정성경에서는 “묵상”으로 옮기고 있는 **וְהִנֵּין**에 대해서 두 본문 모두 각각 “생각”과 “생각하는 것”으로 옮기고 있다.

묵상으로 번역할 때 이 본문은 보다 종교적 맥락에 놓이게 되고, 생각으로 번역할 때 이 본문은 전인적 삶의 맥락에 놓이게 된다. **וְהִנֵּין** 자체는 일차적으로는 이 두 해석 모두에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15절의 간구는 전인적 삶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것이 시인의 지향하는 바이다. 온 피조세계가 태양과의 깊은 결속 관계 가운데 그 신비한 발화행동을 존재적으로 낮마다 밤마다 쏟아놓는다. 시인 또한 말씀, 곧 태양 혹은 신랑, 또는 용사에 비견되는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그의 “입의 말들”과 “마음의 생각”을 생각하는 존재(Cogito, ergo sum)로서 전인적 존재감 전부를 주님 앞에 열납

32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윗글, 195-197.

되기까지 드리기를 바란다.³³

19편 마지막절인 15절에서 마음의 “헤그온”은 입의 말과 평행법적으로 상응하면서 단순히 한 절 내에서의 의미 단락을 형성함을 넘어서서 전체 교차 대칭 구조에서의 2연(B 단락)과 4연(B' 단락)이 형성하고 있는 비유적 평행법의 관계와 주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면서 시편 19편 전체의 주제적 흐름을 함축하여 담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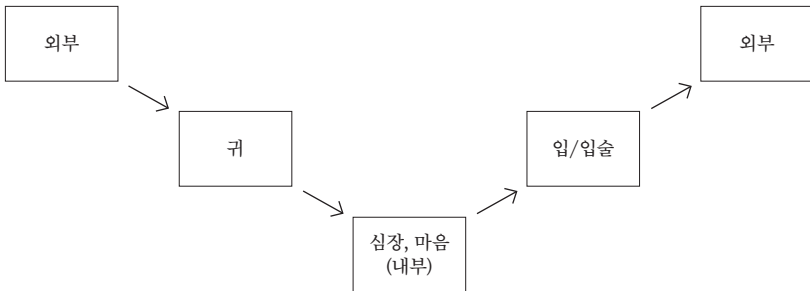
내 입의 말들(15절)	내 마음의 생각(15절)
외적 발화	내적 발화
낮이 낮에게 말을(3절) → 말이 드러나듯 태양이 드러나있는 시간	밤이 밤에게 지식을(3절) → 말이 감추이듯 태양이 그 처소에 머무는 시간
태양이 신흠방을 나온 신랑처럼(6절)	태양이 드러나지 않는 시간은 신흠방에 거처하듯 신부와 깊은 관계적 삶의 밤의 시간 암시됨 → 신랑과 신부의 유비로서 주님과 시인의 깊은 관계성 암시
그 길을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용사처럼(6절)	용사, 곧 전사되시는 하나님은 말씀의 존재감과 능력으로 시인을 오만한 자들의 세력으로부터 범접치 못하게 하시고 큰 죄로부터 깨끗케 하심(14절)
빛과 열기를 뿜어내어 그로부터 어느 누구도 숨을 수 없는 낮의 시간(7절)	시인이 그로부터 책망(깨우침, 빛의 조명)을 받고(12절)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범과들을 분별케 하시고 숨겨진 허물들로부터 시인을 깨끗케 하심(13절)

33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Cogito, ergo sum)”라는 철학적 사유 가운데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에 대해 주목하였다.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이현복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4), 1-342, 원제는 Descartes, *Discours de la methode pour bien conduire sa raison, et chercher la verité dans les sciences* (Leiden, Netherlands: Jan Maire, 1637).

4. 나가는 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발화하는 인간

시편 19편은 기본적으로 온 피조세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발화로 화답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찬양시이자 토라 시편이다. 이 시편의 마지막 절로서 15절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있는 발화로의 부름 가운데 시인도 동참하고자 하는 응답을 담아내고 있다. 시인은 자신의 내적 발화와 외적 발화가 모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기를 지향하면서, 인간의 존재감의 가장 깊은 근원이라 할 수 있는 **לב**(레브/마음,심장)로부터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곧 발화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이해한다. 이는 피조세계에 이미 가득한 찬양예로의 합류를 뜻하며, 그러한 피조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시인은 고대한다.

외부로부터 수용하고 발화하는 인간 관계성의 중심에 놓여있는 **לב**와 관련하여 야노브스키는 **לב**의 중심성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한다.³⁴



구약성경에서 표현되는 **לב**(레브/마음,심장)는 이 도식에서 생각과, 감정, 의지의 기관이자 내부와 외부 사이의 관계성의 중심기관이 된

34 Janowski, 위의 글, 152.

다.³⁵ 구약성경의 인간 이해를 토대로 살펴볼 때 기도자 시인으로 대표되는 시편 19편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며 그 가운데 내적, 외적으로 발화하는 예언자적 존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예언적 담화는 온 피조세계에 가득 하며, 인간 또한 이 발화에 합류되어야 마땅하다. 이 발화는 청각을 울리는 발화를 넘어서서 온땅에 울리는 소리로서 태양빛의 비추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방식의 매우 신비로운 우주적 침묵이기도 하다.

시편 19편의 신학적 인간학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중심으로부터 생각하고 발화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과연 누구를 듣고 생각하고 반영할지에 대해 주목하게 해준다. 이로써 인간 본래 근원적 존재의 자리인 “Coram Deo”로의 정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Barth, Karl, K., KD IV/3.

Briggs C. A. and Briggs, E. G., *The Book of Psalm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56).

Brown, W. P., “Here Comes the Sun: The Metaphorical Theology of Psalms 15-24”, E. Zenger(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238; Leuven: Peeters, 2010), 259-278.

Coetzee, Johan H., “Listen to the silent voice of the heavens and taste the sweetness of torah: Reading Psalm 19 from a “body phenomenological” and an “embodied understanding” perspective”, *OTE* 22/2 (2009), 281-301.

Creach, J. F. D.,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William P. Brown(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Psalm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29-541.

35 Janowski, 위의 글, 148-159.

- Dahood, Mitchel, *Psalms I, 1-50: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65).
- Finsterbusch, Karin, “Mutiperspektivität als Programm. Das betende Ich und die Tora in Psalm 119”, M. Gilbert(ed.), *Wisdom and Torah: The Reception of ‘Torah’ in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Second Temple Period* (Leiden: Brill, 2013), 119–135.
- Gillingham, Susan, *A Journey of Two Psalms: The Reception of Psalms 1 and 2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Görg, M., “זָהָר zāhar”,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eds.), *TDOT* vol. IV (Grand Rapids: Eerdmans, 1997), 41–45.
- Grant, J. A., *The King as Exemplar: The Function of Deuteronomy’s Kingship Law in the Shaping of the Book of Psalm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 _____, “The Psalms and the King”, David G. Firth and Philip S. Johnston(eds.)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5), 101–118.
- Hempel, Johannes, *Die althebräische Literatur und ihr hellenistisch-jüdisches Nachleben* (Wildpark-Potsdam: Akademische Verlagsgesellschaft Athenaion, 1930).
- Janowski, Bernd,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Grundfragen-Kontexte- Themenfelder Mit einem Quellenanhang und zahlreichen Abbildungen* (Tübingen: Mohr Siebeck, 2019).
- Lisowsky, G., *Konkordanz zum hebräischen Alten Testament* (Stuttgart: Privileg. Wurt. Bibelanstalt, 1993).
- Negoita, A. and Ringgren, H., “הִגְהָה hāghāh”,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eds.), *TDOT* vol. III (Grand Rapids: Eerdmans, 1997), 321–325.
- Reynolds, K. A., *Tora as Teacher: The Exemplary Torah Student in Psalm 119* (Supplements Vetus Testamentum vol.137; Leiden Boston: Brill, 2010).
- Terrien, S. L.,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 2003).
- Wagner, J. Ross, “From the Heavens to the Heart: The Dynamics of Psalm 19 as Prayer”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vol.61, No. 2 (April 1999), 245–261.
- 김진명, “시편 19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율법’: 편집비평과 수사비평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8집 (2018년), 5–24.
- _____, 「구약을 그리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5).
- _____, “레위기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07), 1–250.

- 데카르트, 「방법서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이현복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4). 원제 Descartes, *Discours de la méthode pour bien conduire sa raison, et chercher la vérité dans les sciences* (Leiden, Netherlands: Jan Maire, 1637).
- 박종수, 「구약성서의 인간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집 (2011년), 5-28.
- 배정훈, 「거룩의 여정: 거룩에 관한 성서적 탐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22).
- 베스터만, 「시편해설: 시편의 구조, 주제, 해설, 메시지」 (노희원 옮김), (서울: 은성, 1996). 원제 C. Westermann, *Der Psalter* (Stuttgart: Calwer, 1967).
- 볼프,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옮김), (외판: 분도출판사, 1976). 원제 Wolff, Hans Walter,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Chr. Kaiser, 1973).
- 브라운, 「시편」 (하경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 Brown, W. P., *Psalms* (Interpreting Biblical Texts 3; Nashville: Abingdon, 2010).
- 임성권, “시편 19편에 관한 주석적 연구: 시편 19편에 나타나는 <토라> 개념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 학위 논문, 2015).
- , “시편 119편과 145편에서 나타나는 절 단위 평행법에 관한 비교 연구”, 『구약논단』 Vol.30 No.4 (2024월 12월), 333-363.
- 크라우스, H.-J., 「시편의 신학」 (신윤수 옮김),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4). 원제 H.-J. Kraus, *Theologie der Psalmen*. 2. Aufl. (Biblischer Kommentar, Bd 15;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s, Neukirchen-Vluyn, 1978-1979).
- 크레이기, 「WBC 성경주석: 시편 1-50」 (손석태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원제 Craigie, Peter, C., *Psalms 1-50* (Word Biblical Commentary 19; Waco: Word Books, 1983).
- 피터스, 「시편촬요: 최초의 한글 구약성경: 찬성시 수록」 (박준서 엮음/김중은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 하경택, “‘하나님 닮아가기’(Imitatio Dei)로서의 정의-시편을 통해서 본 구약성서의 ‘정의’ 신학”, 『장신논단』 48/2 (2016. 6), 37-66.

검색어

말씀, 태양, 시편 19편, 신학적 인간학, 묵상, 생각

God Who Speaks, Humanity Who Speaks from
Within: Reflections on the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Implications of לִבִּי הֶגְיוֹן (*hegyôn libbî*/the voice of my heart, thought) in Psalm 19:15

Sung-Kwon Y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builds on the author's master's thesis on Psalm 19 by examining the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ignificance of the Hebrew term *hegyôn libbî* in the psalm's final verse: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to you, O Lord." A structural analysis of internal parallelism reveals a deliberate contrast between the external organ (mouth) and the internal organ (heart), which, in Wolff's holistic anthropology, together symbolize the entire human person. As a Torah psalm, Psalm 19 portrays the entire cosmos — heavens, sun, and all created phenomena — as a speaking choir, each element collectively voicing its testimony in response to God's living, life-giving Word. The psalmist's concluding prayer fuses inward reflection and outward utterance into a unified doxology. When the study is extended to Psalms 1 and 2, the verb *hāghāh* ("to think/speak") is examined in its antithetical uses by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thereby linking human inner speech to God's eschatological rule. Finally, by noting Moses's conspicuous absence from the Torah psalms and the democratization of divine dialogue in this "Davidic Psalm," the paper argues that Psalm 19 anticipates face-to-face

www.kci.go.kr

discourse with God—portraying humanity as respondents to the living Word.

key words

Psalm 19, meditation, speaking, heart, thought, the Word of God,
Theological Anthropology

투고일: 2025년 08월 07일

심사일: 2025년 08월 28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9월 01일

www.kci.go.kr